

## 요약

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는 한편, 자기부담률 표준화 이후 고액진료비 보장 강화 등 상품 측면과 보험금 청구 편의 개선·동물병원 제휴 등 서비스 측면에서 보험회사 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. 반려동물 수 대비 보험가입률이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시장 성장 여력이 큰 가운데, 향후 시장의 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청구 간소화 정착·동물 등록제 강화·데이터 집적 등 인프라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

-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주요 상품 조건의 표준화 이후 보험회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 - 반려동물보험 시장에서의 보장을 경쟁과 자기부담금 축소로 도덕적 해이 발생 및 손해를 악화 우려가 제기된 후<sup>1)</sup> 금융당국의 권고로 2025년부터는 모든 상품의 핵심 구조가 대동소이함
  - 이후에는 보장한도 확대와 청구 편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경쟁이 나타나고 있음
  - 본고는 변화한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,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과 안정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함
-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보유계약과 원수보험료가 전년 대비 50%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 대비 가입률이 낮아 추가 성장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
  - 2025년 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총 반려동물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약 25만 건으로 전년 대비 55.3% 증가했으며,<sup>2)</sup> 원수보험료는 1,291억 원으로 처음으로 1,000억 원을 넘기며 전년 대비 61.1% 증가함
  - 2025년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회사가 출범하였고, 2026년에는 디지털 전업 손해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등 보험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음
  - 이러한 시장 확대 배경에는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있음
  - 다만, 지속적인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반려동물 수 대비 가입률(2024년 약 2.1%)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<sup>3)</sup>으로, 이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병존하는 것을 의미함

1) 김경선·한진현(2024), 「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개선 과제」, 『KIRI리포트』, 보험연구원

2) 연합뉴스(2026. 2. 15.), “반려동물은 가족…펫보험 작년 신규계약 40% 급증”

3) 2024년 보유계약건수 251,961건과 개·고양이 수 추산치 776만 마리(농림축산식품부(2025. 2.), “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(2025-2029)”)를 사용함. 이는 미국의 2024년 가입률 개·고양이 합산 약 3.9%(NAPHIA, “State of the Industry 2025”), 일본 2024년 21.4%(Anicom Integrated Report 2025), 영국 개 25%·고양이 12.1%(2023년, Insurance Business Mag(2025. 5. 27.), “Pet insurance claims exceed £1 billion market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- ABI”), 스웨덴 개 90%·고양이 50%(김유미(2023), 「스웨덴 반려동물보험시장 특징 및 현황」, 『KIRI리포트』, 보험연구원) 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임

○ 2025년 반려동물보험 상품 주요 조건이 표준화된 이후 보험회사들은 보장한도와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

- 손해율 악화를 우려한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2025년 5월부터는 모든 상품의 재가입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, 최소 자기부담률(30%)과 최소 자기부담금(3만 원)이 도입되어 상품간 핵심 조건의 표준화가 이루어짐
- 표준화된 영역과 달리 1일·연간 보장한도, 보장 항목, 면책기간 등은 보험회사가 차별화를 모색하는 영역으로, 고액진료비 보장(MRI, 일부 항암제 등 포함) 강화와 종전에 보장하지 않았던 질환(구강, 피부질환 등)에 대한 보장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음<sup>4)</sup>
-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 과정에서 직면하는 비의료 리스크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도 관찰됨
  - 반려동물 관련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<sup>5)</sup>,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장례비용 실손보상, 위탁 비용 보장 범위 확대, 물림사고 발생 시 훈련비용 및 벌금 실손보상 등임

〈표 1〉 각 보험회사 대표상품 비교

비교 항목	A사	B사	C사	D사
갱신주기	1년	1년	1년	1년
보장비율	50, 70%	50, 70%	70%	70%
자기부담금	3, 5만 원	3, 5만 원	3만 원	3만 원
최고재가입연령	만 19세	만 19세	만 19세	만 19세
신규가입연령	생후 61일~만 8세 (실속형 만 10세)	만 2개월~만 10세	생후 61일~만 10세	생후 61일~만 3세
1일 한도 (통원·수술일 외)	10, 15, 30만 원	10, 15, 30만 원	15, 20, 30만 원	15만 원
1일 한도(수술일·입원)	150, 200, 250만 원	150, 250만 원	200, 250, 300만 원	500만 원
연간 보장한도	350, 500, 700, 750, 1,000, 1,500만 원	700, 2,000만 원	3,000만 원	1,000, 1,500, 4,000만 원

주: 갱신주기, 보장비율, 자기부담금, 최고재가입연령 등은 표준화된 항목이며,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보험회사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진 항목임  
 자료: 대형 2개사와 신규 진입 2개사의 반려견 대표 상품 약관 및 홈페이지를 참조함

○ 상품 차별화에 더불어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서비스 차별화도 이루어지고 있음

- 일부 회사에서는 제휴 동물병원에서 보험금을 실시간 차감 후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는 보험금 실시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음<sup>6)</sup>
- 반려동물보험 보험금 청구 방식은 사후 청구에서 제휴병원 진료 시 자동 청구, 제휴병원 진료 시 실시간 지급 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, 청구 절차의 편의성이 서비스 차별화의 핵심 축으로 부상함<sup>7)</sup>

4) 다만 이러한 보장 확대는 소비자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금 증가와 손해율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. 미국의 사례로 고액 전문진료(종양·신경 관련 진료 포함) 분야에서 청구 건수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됨 Trupanion(2025. 3. 11.), "Specialty Veterinary Care: The Newest Trend in Veterinary Medicine"

5) 2018·2020년 각 1건에서 2024년 1건, 2025년 5건으로 증가함

6) 제휴 동물병원에는 서류 부담 경감, 청구 편의성으로 인한 고객 방문 증가, 카드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(<https://www.dailywet.co.kr/news/industry/254483>)

7) 일본에서 반려동물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니콤(Anicom)의 청구정산 사례는 표준화·전산화가 정착될 경우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시장에서 핵심 경쟁우위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, 독일의 일부 펫보험회사 또한 진료 코드의 청구 시스템 연계에 기반해 보험회사에서 동물병원에 직접 보험금을 지불하는

-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청구 편의성 증진, 동물병원의 행정 부담 경감, 보험회사 상품 설계 용이성을 높임
- 한편 병원별로 진료코드가 상이한 점 등의 어려움으로 보험회사별로 청구 전산화의 방식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어, 병원과의 제휴 강화 및 인프라 정비 병행 없이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임

○ 상품 표준화와 이에 따른 차별화로 반려동물 시장에서 성장과 경쟁이 시작되었으나, 성장세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 세분화가 필요함

-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동물병원이 의무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고, 권장 표준 진료 절차 대상 항목도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고, 표준화된 질병·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제공함<sup>8)</sup>
- 최근 중고연령 개의 보험 가입 비중이 늘어나는 중으로,<sup>9)</sup> 과거에 비해 피보험 동물의 연령이 다양해짐에 따라 위험 세분화의 필요성이 증가함
- 또한 반려동물 품종·연령·사고군별로 보험회사 손해 수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바, 동물 질병 데이터 집적을 통한 담보별 손해율 산출과 위험집단별 보험료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함

○ 더 나아가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 정착, 동물 등록제 강화 및 데이터 집적 등 인프라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

- 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확대는 소비자 편의 개선을 넘어 보험 가입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
  - 제휴 동물병원과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 확대로 소비자 편의 향상, 동물병원의 행정비용 절감,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및 상품 설계 용이성 제고를 꾀할 수 있음
  -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수증 등 필요 서류 양식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청구 간소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
-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 강화와 데이터 축적의 병행이 필수적임
  - 반려동물 개체 식별 및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진료를 위해 내장형 칩 기반 동물 등록 및 안면, 비문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등록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 -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2026년 5월, 동물병원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반려견·반려묘의 나이대별 다빈도 질환을 발표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질병 발생 특성을 제시함<sup>10)</sup>
  - 생애 추적 정보가 포함된 보험 데이터를 공유하는 보험업계·수익업계·정부 간 데이터 공유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종·성별 발생률과 평균 수명까지 담은 장기 종단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<sup>11)</sup>

시스템을 제공함(고은희·강하영(2025), 『반려동물 의료·보험서비스 시장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』,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5-05)

8) 「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」(농식품부 고시 제2025-44호, 2025. 4. 25. 개정),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강제력이 없는 권장사항임

9) 이는 반려동물의 기대수명 증가와 노령기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견주들의 선제적 대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(안태형(2025), 「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사고군별 손해특성 분석」, 『CIS이슈리포트』, 2025-1호, 한국신용정보원)

10) 농림축산식품부·농촌진흥청(2026. 5. 6.), 「반려견·반려묘, 나이별로 잘 걸리는 질병은?」

11) 일본 애니콤에서 매년 평균 수명, 질병 통계를 공개하는 「가정동물백서」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. 백서에는 질병 발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질환별 연령별 진료비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진료비 정보 접근성 또한 제고함(<https://www.anicom-page.com/hakusho/>)